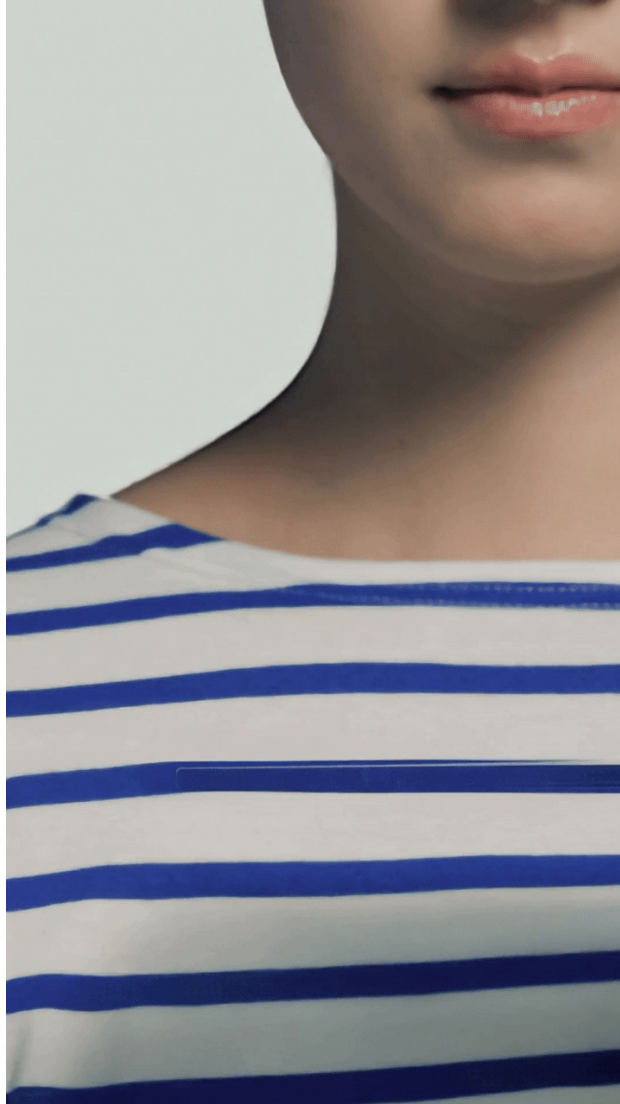


"삼성 감 좋아졌네"...폴드7 '두께' 강조한 광고에 호평 일색

등록 2025.07.14 17:48:34 | 수정 2025.07.14 17:52:05



갤럭시 Z 폴드7 광고 영상. (사진=삼성전자 공식 틱톡)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역대 갤럭시 폴더블폰 중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7'를 선보인 삼성전자가 신제품 소개 광고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폴드7의 얇은 두께를 신선한 형태로 강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갤럭시 언팩 2025' 이후 인스타그램, 틱톡 등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폴드-플립7 등 신제품 광고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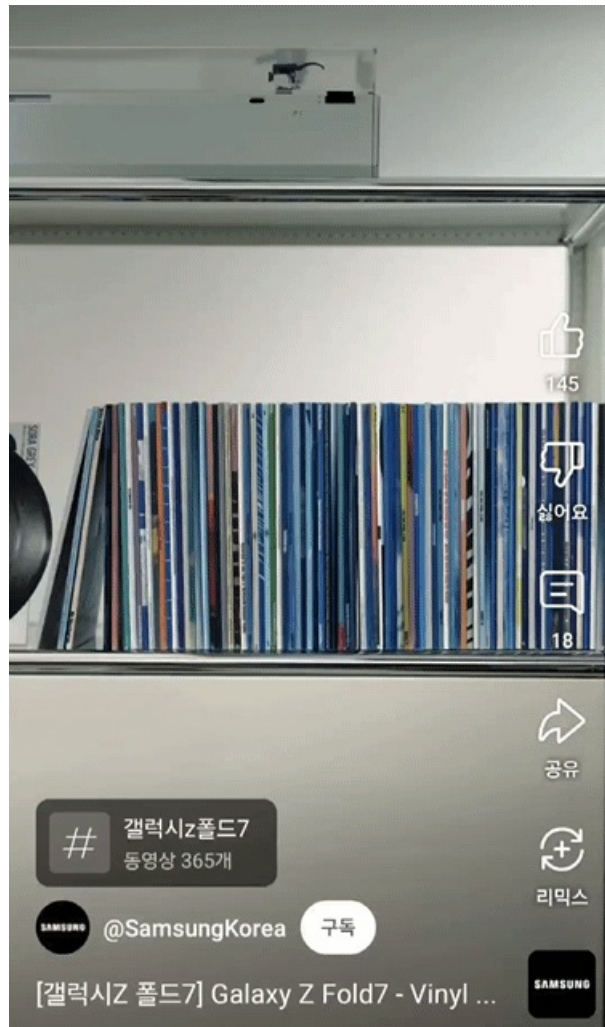
이들 광고는 폴드7의 두께나 카메라 성능을 소개했다. 폴드7의 두께는 접었을 때 8.9mm, 접었을 때 4.2mm로 역대 삼성 폴더블폰 중 가장 얇고, 무게도 215g으로 전작보다 24g 줄었다. 삼성 폴더블폰 최초로 갤럭시 S 울트라와 같은 2억 화소 카메라도 탑재됐다.



갤럭시 Z 폴드7 광고 영상. (사진=삼성전자 공식 틱톡)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이 공개한 SNS 광고들에는 이같은 얇은 두께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보였다. 한 광고 속에는 파란 가로 줄무늬가 있는 셔츠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더니 옷 줄무늬 속에서 폴드7이 갑자기 나타난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LP판들 사이에서 그만큼 얇은 폴드7을 꺼내드는 모습이 담겼다. 폴드7의 색상과 같은 푸른색 형광펜을 굿자 펜 두께만큼 얇은 폴드7이 튀어나오는 광고도 있었다.



갤럭시 Z 폴드7 광고 영상. (사진=삼성전자 공식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폴드7의 두께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폴드 시리즈 특유의 세로 배치 트리플 카메라 렌즈를 활용한 광고도 공개했다. 특히 이 광고는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콜라보로 더 눈길을 끌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눈이 3개 달린 까치 요괴 '서씨(수지)'가 광고에 등장하고 서씨의 눈이 폴드7의 카메라로 전환되는 식이다. 실제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후 해당 캐릭터의 눈 세 쌍이 갤럭시 폰카메라 렌즈를 연상시킨다며 국내외에서 '갤럭시 까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갤럭시 Z 폴드7 광고 영상. (사진=삼성전자 공식 틱톡)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광고 영상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삼성전자의 일부 광고들이 '촌스럽다'는 악평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웬일로 감이 좋다" "대기업 광고면 이정도는 돼야지" "삼성 광고 보고 감탄한 건 처음" "제품 잘 나와서 신난 게 느껴진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오는 15일부터 폴드-플립7의 국내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25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출고가의 경우 폴드7은 237만9300원,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